LG이노텍, 이웅범 대표이사 선임

LG이노텍은 이웅범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2월2일 발표했다.

이웅범 LG이노텍 신임 대표이사

이웅범 신임 대표이사는 1983년 LG상사에 입사해 1986년 LG전자로 옮긴 후 PCB사업부장과 MC사업본부 생산담당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.

2010년부터는 LG이노텍 부품소재사업본부장을 맡아 고화소 카메라모듈, 반도체 기판, 자동차용 모터 등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의 첨단 부품·소재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.

특히,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 및 해외시장 공략으로 부품소재사업을 미래 성장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밖에 LG이노텍은 김창환 가판소재사업부장을 전무로 승진시키는 등 7명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.

LG 관계자는 "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인재 및 이공계 인재 발탁에 주력했다"고 설명했다.

한편, LG실트론도 변영삼 생산기술본부장 겸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.

변영삼 신임 대표이사는 1989년 LG반도체에 입사해 하이닉스반도체 생산본부 상무, 동부일렉트로닉스 생산총괄 부사장, 동부하이텍 기획관리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부터 LG실트론에서 생산기술본부장 겸 부사장을 맡아 왔다.

<화학저널 2011/12/02>

Copyright ⓒ 1991 by CMRI